

대학급식소의 이용실태 및 급식서비스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평가

노정옥* · 김애정¹ · 우경자²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혜전대학 식품영양과¹,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식행동과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급식소의 이용실태 및 제공되는 급식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급식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인천지역 대학생 305명의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통계처리는 SPSS 1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은 남학생 145명(47.5%), 여학생 160명(52.5%)였으며 남학생 평균연령은 25.13세, 여학생은 21.59세였다. 학생들의 거주상태는 남녀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남학생은 21.4%, 여학생은 30.0%이었고 하숙생의 42.9%,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의 34.4%는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지만 친척집,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점심식사 종류는 남학생의 94.5%, 여학생의 90.6%가 한식류이었다. 저녁식사는 8.9%의 대학생만이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3. 대학생 중 61.0%는 점심식사, 3.9%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며 조사대상자의 23.0%는 '1주일에 1~2회', 17.0%는 '1주일에 3~4회', 17.0%는 '한달에 1~2회', 14.1%는 '하루에 한번', 6.9%는 '하루에 2번'이용하고 있었다. 학교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83.9%의 학생은 학교 밖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였다.
4. 학교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 저렴' 34.6%, '시간 절약' 25.3%, '위치가 가까워서' 24.4%, '달리 식사할 곳이 없어서' 5.1%, '친구들이 이용하므로' 3.5%, '위생적이므로' 2.5%, '맛이 좋아서' 2.4%이었다. 학교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중요이유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23.1%, '음식맛이 없어서' 21.8%, '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15.7%,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14.8%이었으며 다른 이유로는 적은 반찬수, 큰 소음, 비위생적, 적은 음식량 및 운영시간의 제한이었다.
5. 학생들은 '메뉴의 다양화', '음식맛의 향상', '소음 제거', '운영시간의 연장', '기다리는

시간의 단축', '위생적인 관리', '식기 교체', '음악의 설치', '식당입구의 분위기'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빠른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좀더 종업원들이 친절하며 식단정보 등의 안내가 시기 적절하게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배식음식의 양 및 온도, 가격은 만족하고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녀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식습관, 결식 및 외식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학교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서비스품질에 불만족하고 있어 학교 밖의 식당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보다 나은 질의 식사와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급식소환경을 원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보다 만족하는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식품비 상승 등에 의한 식사가격의 소폭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학생들이 급식소의 저렴한 식사가격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소에 대한 학교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같은 개선을 통하여 학교급식소는 대학생들에게 영양적인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들이 바쁜 대학생활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급식소의 이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